

공항사용료 환급, 입법 예고… ‘절차 단순화’ 시스템 절실

국토부, 항공권 이용안한 경우
소비자에 환급청구권한 주기

“구매처와 무관, 항공권 제시하면
중간단계 없이 바로 환급해 줘야”

항공권에 포함되는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실질적인 환급 활성화를 위해선 환급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항사용료는 티켓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구매처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권 구매 시 인천·김포 공항의 국제선에는 공항사용료 1만7000원이 부과된다.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40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예매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경우에도 소비자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공항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부과해야 하지만, 비행기 미탑승 고객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 권한이 없어 항공사 접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공항사용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주

기 위해 환급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권한 부여 및 안내 외에도 간단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항공사는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권 판매 금액에 포함하고 있어, 항공권 환불 신청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환급받

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원칙적으로 항공권 구매처를 통해 환급 및 환불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이 아니면, 공항사와 무관하게 플랫폼이나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해외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처

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환불이나 환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에는 지난 2023년 해외 서비스 구매 관련 7029건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주요 상담 내용 중 하나는 OTA를 통해 거래되는 항공권과 숙박권 환불 관련 문의였다.

항공권 환불이나 환급을 위해 구매처에 따라 여러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절차 단순화가 필요하다. 구매처와 무관하게 공항이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을 제시하면 금액을 환급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로부터 여객 정보를 받고, 그 여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여러 과정이 소요된다”면서 “공항에서 그렇게(환급)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항공사로 될지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벤틀리, 슈퍼카 수준 퍼포먼스로 韓 공략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
직전모델 대비 최고출력 19% 향상
파워트레인 782마력 시스템 출력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 벤틀리가 4세대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와 컨티넨탈 ‘더 뉴 컨티넨탈 GTC 스피드’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벤틀리는 3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벤틀리 큐브에서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 공식 출시 행사를 열었다. 벤틀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폭넓은 라인업 구축을 바탕으로 섬세한 럭셔리 카 고객의 취향을 저격할 계획이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는 이번 공식 출시로 ▲더 뉴 컨티넨탈 GT ▲더 뉴 컨티넨탈 GTC ▲더 뉴 플라잉스피어 ▲벤데이가 ▲벤데이가 EWB에 이르는 넓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한국 시장에 구축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는 슈퍼카 수준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벤틀리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반도로용 모델이자, 벤틀리의 ‘지속 가능한 럭셔리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모습. /벤틀리

리’라는 이상을 구현한 차량이다.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에는 새롭게 개발된 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600마력을 발휘하는 신형 4.0L V8 엔진과 190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이 782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3.2초다. 이전 모델보다 최대토크 11%·최고 출력 19% 향상됐으며, 일반도로용 벤틀리 중 역대 최고 성능이다.

순수 전기 동력만으로 최고출력 190마력(PS), 최대토크 45.8kg.m의 성능을 발휘해 최고속도 140km/h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순수 전기 모드 주행가

능 거리는 WLTP 기준 81km(GTC 78km)에 달한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9g/km 수준이다.

더 뉴 컨티넨탈은 1952년 탄생한 R-타입 컨티넨탈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 미래 비전을 담은 감각적 디자인이 반영됐다. 벤틀리 관계자는 “이번 보텔은 차체 전면부는 종마의 우아한 자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며 “휴식은 맹수의 자세를 콘셉트로 언제나 내달릴 준비를 한 채 웅크린 맹수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소개했다.

1959년형 S2 이후 처음으로 싱글 헤드램프를 채택해 수평 라인을 부각했으며, 크리스탈 컷 다이아몬드 패턴의 가로형 일루미네이티드 라이트가 탑재됐다. 가격은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3억4610만원·더 뉴 컨티넨탈 GTC 스피드가 3억8020만원부터 판매된다.

벤틀리는 2025년 상반기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 예정인 더 뉴컨티넨탈 GT·GTC 물리너의 주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대성 기자

한화오션, ‘프리 피드’로 글로벌 정조선

미국·프랑스 선급서 개념승인 획득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표준 해양 플랫폼을 선보이며 글로벌 해양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미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표준 FPSO Pre-FEED(프리 피드)’ 설계에 대한 개념 승인(AIP·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는 해저 시추구로부터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려 정제해 저장하고 운반선에 하역까지 담당하는 ‘바다 위의 공장’이다.

한화오션이 개발한 표준 FPSO 설계는 길이 340m·폭 62m 크기다. 일일 원유 생산량은 19만 배럴이고, 약 238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또 최대 5만 5000톤 중량, 1만 7600제곱미터(m2) 규모의 원유 및 가스 생산 설비 상부 구조물(Topside)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최대 20년간 ‘리도킹(Re-docking)’ 없이 가동 가능한 선체(Hull) 설계를 채택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화오션은 개념 승인으로 고객사에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양 환경 조건이 까다로운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 행사

인천행 KE024편 고객 대상

대한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아 고객 대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아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KE024편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994년 10월 29일 서울~샌프란시스코행 정기 여객편을 처음 띄웠고, 해당 노선은 매년 주 7회 이상

운항을 해왔다. 지난해 총 탑승객 수 17만6000여 명으로, 미서부 노선에서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승객을 실어날랐다.

대한항공은 30번째 탑승수속 승객에게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1매를 증정했으며 탑승객 전원에게 에코백, 초콜릿 등을 선물했다.

이진호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은 “지난 30년 간 한국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모든 순간에 대한항공과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비렉스’ 신상품 ‘소프트 쿠션 프레임’ 출시

코웨이가 포근한 쿠션 헤드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강조한 ‘비렉스(BEREX) 소프트 쿠션 프레임’을 출시했다.

30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소프트 쿠션 프레임은 볼륨감 있는 헤드보드와 양측의 곡선형 날개 쿠션이 측면까지 감싸주는 디자인을 적용해 포근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풍성한 헤드부 쿠션이 등과 뒷목을 탄탄하게 지지해줘 침대에 기대어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침대 양 옆은 곡선으로 아늑하게 감싸 수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티저 이미지 첫 공개… 출시 초읽기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6에 이어 전기차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오닉 9(IONIQ 9)’의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아이오닉 9(IONIQ 9)’의 티저 이미지를 30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9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현대차의 세 번째 모델로,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 성장을 견인할 전동화 SUV 모델이다. 차명인 아이오닉 9는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명명 체계에 따라 전용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IONIQ)’에 대형 차급을 의

미하는 숫자 ‘9’를 결합해 완성했다.

이날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9 티저 이미지는 차량의 실루엣과 전면부 램프, 캐릭터 라인, 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날렵한 외관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보트(Boat)에서 영감을 받았다.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9에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에어로스테틱(Aerosthetic)’ 실루엣을 연출했다. 에어로스테틱은 공기 역학을 의미하는 ‘에어로다이내믹(Aerodynamic)’과 미학을 뜻하는 ‘에스테틱(Aesthetic)’의 합성어로 공력의 미학을 담은 디자인을 말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베일 벗는다